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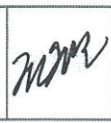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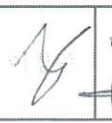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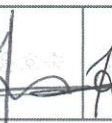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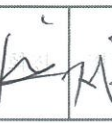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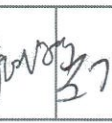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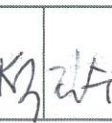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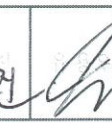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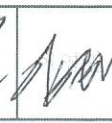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

## 2021학년도 제5차 회의록

의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22. 1. 13.(목) 15:30 ~ 16:5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8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 (11명) : 이광은, 권원순, 박용구, 이창준, 윤호숙, 김희진, 정현혁, 조기석, 김수진, 유용일, 이영만
  - 회의지원(1명) : 엄종섭
  - 학 교(2명) : 박헌일 기획처장, 정송조 기획팀장
4. 회의 안건
  -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정현혁 의장이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정현혁 의장의 요청에 따라 박헌일 기획처장이 ‘2022학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총칙, 주요 수입 및 주요 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을 진행함.

대학평의회									
									

- 정현혁 의장이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3년차 사업비가 약 14억 9천만원으로 1, 2년차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지출됐어야 하는 일부 비용을 2022학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시기가 변경되어 증가하였다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예산 편성 기본 방침 ‘등록금 수입 증가 및 수익 다변화를 통한 재정 운용 강화’ 내용 중 외부기관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과 해외 학생 유치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외부기관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 교육사업과 한국외대 신입생 영어진단평가 등 평생교육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함. 해외 학생 유치 등 수입 다변화를 예산 편성 기본 방침으로 마련한 이유는 현재 우리 대학 입시 정원내 일부 전형에서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어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산업체 위탁생 등 정원외 입시 활성화를 통해 등록금 수입 증가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 교육사업과 한국외대 신입생 영어진단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추가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중인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 교육사업과 한국외대 신입생 영어진단평가 관련 수입 규모는 약 3~4천만원 정도이고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적어 수입 대부분이 학교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고 답변함. 두 사업 모두 기관 만족도가 매우 높아 단년 사업에 그치지 않고 2022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함.
- 정현혁 의장이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3.4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제2교사 신축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때문에 감소한 것이라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2022학년도를 끝으로 입학금의 점진적 감축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2022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2023학년도부터는 99,000원으로 유지되며 입시 결과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8억 ~ 3.1억 규모의 수입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지난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콘텐츠 개발 비용이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콘텐츠가계정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2021년에 콘텐츠 외주 개발 업체가 변경되었으며 당시 입찰을 진행하면서 타 사이버대학 콘텐츠 개발 비용을 조사해본 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콘텐츠 개발 비용이 상승했음을 설명하고 신규 콘텐츠 외주 개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기존 대비 콘텐츠 개발 비용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답변함. 다만 외부에서 수주했던 K-MOOC 사업이 종료되어 관련 비용이 빠지면서 전체 콘텐츠가계정이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답변함.
- 이영만 평의원이 2022학년도 예산 요약본 학생지원비 및 기타학생경비 항목에는 학생 자기치구 및 행사 지원 104백만원, 해외 프로그램 경비 지원 5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 예산 자료에는 기타학생지원비가 79백만원으로 두 자료간 수치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조금전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동아리활동 지원과 운동부 지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자기치구 지원 비용 중 총학생회 지원 비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학생 자기치구 지원 비용 중 총학생회 지원 비용에 대하여 질의함. 추가로 해외 프로그램 경비 지원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학생지원비 중 관련 세목에 대해서는 이영만 평의원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금전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담당자가 담당부서에 확인한 후 답변드리기로 했으니 해당 답변으로 같음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함. 추가로 해외 프로그램 경비 지원 항목은 단기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등 각종 해외 프로그램 경비 지원 내용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임.
- 정송조 기획팀장이 이영만 평의원께서 질의해주신 기타학생지원비 79백만원은 해외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아니라 전자도서 임차, 상패 제작 및 CTL 특강 등의 비용이 통합된 항목이라고 설명함. 추가로 현재 나누어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예산(안)을 관, 항, 목으로만 요약해도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목까지 포함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평의원 분들께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더 어렵기 때문에 관, 항, 목으로만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임.

- 윤호숙 평의원이 오늘까지 진행된 2022학년도 1차 입시 결과 전년대비 약 8.6%정도 하락했음을 설명하고 아직 2차 입시가 남았지만 입시 결과 하락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 두 번째로 회의자료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 지양이라는 문구에서 ‘불요불급’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질의함. 세 번째로 사이버대학에서는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콘텐츠의 수를 줄이는 방향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언급하고 콘텐츠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함. 네 번째로 앞으로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보다는 외부기관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이나 해외 학생 유치 전략 등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높은 비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관련 재정 건전성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섯 번째로 제2교사 신축 관련하여 구성원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됐는지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지난 2020년 6월에 구성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설명하고 당시에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답변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윤호숙 평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2021학년도 1차 입시는 전년대비 약 9%정도 상승했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특히 결과가 좋았던 해라고 설명하고, 2021학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5개년간 1학기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약 1,900 ~ 2,000명 수준으로 이번 입시 결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학 담당부서인 입학홍보팀에서는 2022학년도 1차, 2차 입시 결과를 2020학년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함. 2022학년도 1학기 등록생은 약 6,600명으로 예상되며 2021학년도와 비슷한 수치라고 추가 설명하고, 입학홍보팀, 대외협력팀 및 각 학부(과)에서 입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학홍보팀에서 예상한 입시 결과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두 번째로 ‘불요불급’한 사안은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 항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먼저 연구·학생경비는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억정도 감소하였고 관리운영비는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5.7억 정도가 증가했지만 관리운영비 증가분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용 약 7.3억 증가분과 교육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약 0.8억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개 항목 증가분 약 8.1억을 제외하면 오히려 관리운영비는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2.4억 정도가 감소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대학의 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관리운영비 일부 절감 등이 ‘불요불급’한 사안이라고 답변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세 번째로 콘텐츠 개발 단가가 약 40%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콘텐츠개발비용이 증가했고 과목을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콘텐츠 운영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함. 네 번째로 미주글로벌센터 운영 관련 지출되는 비용은 없으며 미주글로벌센터 등의 기관을 운영하는 원칙이 기관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다섯 번째로 제2교사 신축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승인은 받기 전이라고 답변함.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교지 반경 2km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이버대학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콘텐츠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인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면 콘텐츠 개발 비용을 많이 낮출수 있기 때문에 무인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추가로 연구·학생경비 항목 중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지원비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지원비용은 2021학년도부터 연구관리비 계정으로 계정대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유용일 평의원이 2021학년도 예산에는 직원상여 예산이 있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편성이 안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교원, 직원 모두 특별상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김희진 평의원이 제2교사 신축 관련하여 당초 건축비를 어느정도로 책정했고 2022학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축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질의함. 최근에 기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상한 금액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표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당초 건축비는 50 ~ 60억 정도로 예측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2학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축비는 기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반영하여 책정한것이라고 답변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건축비를 산정한 시점은 한달도 안되었다고 설명하고 최근에 철강 등 기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건설업계 추세를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함. 건축비는 실시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한

국외대 건설기획팀의 자문을 받아 최근에 한국외대에서 진행한 공사들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답변함.

- 권원순 평의원이 제2교사 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어느정도 상승했는지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확인후에 답변드리기로 함.
- 김희진 평의원이 내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건축비 뿐만 아니라 증별 용도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받아 주시기를 제안함.
- 박용구 평의원이 전입 및 기부수입 지정기부금이 발전기금이 맞는지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전입 및 기부수입 지정기부금이 발전기금이 맞다고 답변함.
- 박용구 평의원이 발전기금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발전기금 모금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밝힘.
- 이창준 평의원이 홍보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 사이버대학 홍보비와 비교를 해 봤는지 궁금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예산을 증액하거나 증액이 힘들다고 하면 홍보비 예산을 어떻게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김수진 평의원이 교육훈련비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예산의 소진율이 궁금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비해서 교직원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를 건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이 업무 관련 세미나나 교육을 받는데 지원되는 비용으로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교육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관련 예산 소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답변함. 2022학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담당 부서인 행정팀에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함.
- 윤호숙 평의원이 콘텐츠 임차료가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Ohio University 강의 임차료가 1.3억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몇 개 과목을 임차하는지 질의함.
- 김희진 평의원이 해당 프로그램은 개교 초창기에 영어학부의 차별화 전략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운영 초창기에는 7개 과목을 임차 운영했고 지금은 5개 과목으로 임차 과목수가 줄었다고 답변함. 추가로 해당 프로그램 관련 불만이 많아 학생들에게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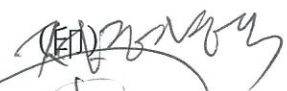









- 박헌일 기획처장이 Ohio University와의 계약이 2022년 여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연장 여부를 학부 교수님들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정현혁 의장이 2022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는지 평의원들에게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된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을 완료함.

#### 7. 폐회선언

- 정현혁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2022년 1월 13일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정 현 혁	(인) 
평 의 원	이 광 은	(인) 
평 의 원	권 원 순	(인) 
평 의 원	박 용 구	(인) 
평 의 원	이 창 준	(인) 
평 의 원	윤 호 숙	(인) 
평 의 원	김 희 진	(인) 
평 의 원	조 기 석	(인) 
평 의 원	김 수 진	(인) 
평 의 원	유 용 일	(인) 
평 의 원	이 영 만	(인) 